

외국인 대상 전통놀이 알리기 주력

한국전통문화전당, 프랑스·독일 등 11개국 유학생 대상 고누체험 등 다양한 행사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놀이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전당은 지난 2020년 전통놀이를 현대와 접목해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를 일련에 확산시키고자 '우리놀이진흥팀'을 신설하고, 전통놀이 전용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개관했다. 또 전당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무료로 실내 또는 야외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놀이, 집(zip)'을 운영,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놀이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사진은 외국인 바둑고누 체험 모습)

우리놀이진흥팀은 그동안 우리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다음세대 계승교육 프로그램을 비롯, △놀이도구 현대화 △우리놀이터 마루달 전국 공모전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실날·정월대보름·삼짇날·단오 등 시·기별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세계로 눈을 돌려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놀이를 알리려는 계획 아래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진행, 우리놀이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전북대학교 이야기연구소와 함께 전주에 거주 중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 헝가리, 과테말라, 남아프리카 등 11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인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고누체험'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놀이 흔적이 남아있는 전주 풍남문 누각에서 △참고누를 중심으로 △호박고누 △바둑고누, 그리고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딱지치기 등 다양한 놀이체험을 진행, 유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국제 유사전통놀이 기반 놀이콘텐츠 개발운영사업'을 통해 몽골, 스페인, 교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업에는 몽골 울란바타르 학교 학생과 스페인 바라칼

도·사라고사 2개 지역 학생·교육계 인사 600여명이 참여, 나라간 전통놀이에 대한 교류의 장(場)을 펼치기도 했다. 3개월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전당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사방치기, 윗놀이 중심의 △청소년 프로젝트 △온라인 발표회 △전문가 온라인 컨퍼런스 등을 진행, 세계인들에 우리놀이를 각인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고누체험에 참여한 스페인 유학생 세살(Cesal·남)씨는 "스페인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인의 독특한 전통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돼 기뻐"며 "특히 전주 풍남문 누각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참고누를 즐기며 전주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외국인들이 재미있는 우리놀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우리 전통놀이가 세계 속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시민참여 문화프로젝트 우리는 도공의 후예 운영

남원시, 10월 23일까지 진행

남원시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지난 24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남원 춘향테마파크 내 위치한 남원시민도에대학교와 지역작가 공방, 지역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등 남원시 일대에서 운영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가 주최하고 남원국제도예예술연구센터가 주관, 지역작가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도예공원과 누구나 가능한 도예 체험 등이 펼쳐진다.

'의자'를 주제로 한 우리가 만들어 가는 도예공원은 지난 3월부터 지역내 15여명의 도예

작가들과 만나 각 작가의 특색을 살린 조형의 다양성과 예술성, 창작성을 보여주는 '의자 작품들로 구성, 도자기가 지닌 독특한 질감과 독창적인 조형성을 추구하는 지역작가들의 작품들을 심수관도예전시관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다.

24일, 심수관도자기 여행을 주제로 강연대 이 미술 교수의 특별강연 '중세 일본의 차문화와 조선사기장'과 동덕여대 엄성도 교수의 토크 콘서트 '석고를 성형 기법의 다양성'을 통해 정유재란에 일본으로 간 조선사기장 이야기와 사쓰마 웨어러는 브랜드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심수관 도자기의 주요 특징인 슬립캐스팅 강연이 펼쳐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착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 이하 재단)은 국가 태권도의 저변 확대 및 새로운 태권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1년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2년 사업을 착실히 진행중이다.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국가(國) 태권도가 지속가능한 K-콘텐츠의 주요 분야로 수련 중심의 태권도 산업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형 태권도로 전환하고자 재단이 201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재단은 이미 기능성 게임, 연재 웹툰, 영상 콘텐츠, 웹툰 등 분야를 발굴 지원하고 있어 2022년 정부가 지속가능한 K-콘텐츠 육성 정책에 맞춰 주목받고 있다.

2021년도에는 태권도를 소재로 한 무대공연과 애니메이션을 제작 지원하여 발굴하여 인

기를 끌었으며 태권도의 미래 신(新) 분야 개발을 위한 '태권도 가상스포츠 추진방향'을 연구해 태권도 산업계 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태권도를 소재로 한 무대공연인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는 뮤지컬로 제작되어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개막, 관객 평점 10점 만점 중 9.8점을 받는 등 호평을 받았다.

또한 태권도 소재 애니메이션은 '호키의 초능력 도장: 태극 1장의 비밀', '주라기갑스 시즌4 태권소년 공찬', '교육 K팝을 활용한 글로벌 영어 태권도' 등 총 3편이 제작되어 글로벌 MCN 엔터테인먼트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국 태권도장 대상 동시 상영 이벤트를 통해 보급되었고, 향후 지상파와 케이블 TV에서 방영을 앞두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정지인과 아나운서, 학자 등 다양한 명사들의 스타일링을 맡아 이미지 설계를 해주는 퍼스널 브랜딩그룹 YHMG의 윤혜미 대표가 출연해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퍼스널 브랜딩의 힘'을 주제로 진행한다. 일반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1995년부터

'KBS 9시 뉴스'를 비롯해 '열린 음악회'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 일화, 대선 후보들의 이미지 브랜딩과 관련된 후일담을 들어본다.

우리 음악 즐기기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해 북두칠성에 소원을 빌 듯 애절함을 전하는 기악중주 '북두칠성',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화사한 가야금 연주와 소리로 들려주는 가야금병창을 선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만 5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도내 거주 예술인 대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일부터 도내 예술인 의료비(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밝혔다.

전라북도 예술인 의료비(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 및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사업은 선정 예술인이 도내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 재단에서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예술인 총 7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2년 9월 20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둔 만 5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으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2021년도 종합건강검진 지원 수혜자 △국립민속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지자체 공무원 및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80%)을 초과한 예술인이다.

협약기관은 (재)예수병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이며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비 지원 및 4대 중증질환 등 다양한 분

야의 의료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전자우편(jb7118@hanmail.net)접수 및 방문접수(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5층 예술인복지증진센터)가 가능하다.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도내 예술인들의 권리 향상 및 처우개선 등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의료비(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광역재단 최초 진행함으로써 예술인 의료복지 분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단 류상록 문화예술본부장은 "예술인 의료비(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도내 예술인들이 건강한 창작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